

“의병은 단절된 과거가 아닌 살아 있는 역사”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의병들의 활약상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의병은 살아 있다'는 나라사랑의 뜨거운 숨결과 함성을 담고 있다. '기묘사화, 피의 흔적-士林전하 이렇게 만들었다'를 펴낸 임도혁 조선일보 기자가 저자다. 의병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저자는 호남과 충청의 유적을 훑어 대대의 역사를 입체화했다.

의병은 살아 있다

임도혁 지음

올해 79주년을 맞은 광복절은 여느 해보다 시끄럽고 어수선했다. 특히 신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다른 이슈를 압도할 만큼 관심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친일'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반발하며 정부 주관의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 국민의 힘은 경축식 불참과 관련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반만 년 우리의 역사는 외세 침략에 맞선 자주와 호국의 역사로 집약된다. 슬한 외침과 국권 상실에도 오늘날 세계 속의 당당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3·1운동을 비롯한 독립 운동가들의 눈물겨운 투쟁에서 기인한 바 크다.

독립투사들의 활동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당시 활동했던 수많은 의병들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의병은 지난 과거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현존하는 살아 있는 역사이다.

'의병은 살아 있다'라고 책 제목을 정한 것은 의병들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지극히 당연하지만 이 말의 울림이 적잖은 것은 그만큼 역사를 왜곡, 폄하하려는 세력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일 터다.

(재)석오문화재단·(사)서울여해재단 이사장 운동한은 “여느 역사책처럼, 문헌과 사료에만 의존해 쓴 책이 아니다. 전적지를 소개하며 느낌을 적은 평면적인 답사서도 아니다”며 “저자가 직접 발로 뛰며 곳곳을 누빈 땀이 배어 있다. 의병과 수군, 의병과 가족 사이의 공간적인 접점을 찾고 있으며, 의병과 후손 간 시간적인 고리도 찾아내 연결하고 있다”고 평했다.

책은 호남, 충청 지역 의병들의 정신과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 위주로 구성됐다. 호남은 해안과 평야 지대가 있는 곳이라 예로부터 왜군들의 침략이 잦았다. 임진왜란 당시에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음에도 의병들과 민초들의 봉기가 있었다.

무등산에는 충의의 공간이 많다. 익히 알려진 김덕령 장군을 기리는 충장사를 비롯해 정지 장군을



왜군들과 육박전을 벌이는 의병들 모습을 담은 '금강전투도'(정창섭 작·원곡)와 송제민과 송타, 권필의 위패를 모신 무등산 운암서원 내 운암사 전경.



봉황하는 경열사가 대표적이다. 광주시민들이나 남도 사람들은 대체로 이들 장군의 활약을 아는 편이다. 그러나 이곳과 가까운 운암서원에 대해서는 아는 이들이 드물다. 이곳은 조선 중기 학자이자 임란 때 호남과 충청에서 활동을 펼쳤던 송제민 외에 그의 큰 아들 송타, 사위 권필도 배향돼 있다.

송제민(宋濟民)이라는 이름에는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구제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곤재 정계정과 토정 이지함에게서 수학했던 그는 호방한 성격으로 서인, 동인 경계를 두지 않고 교류했다. 1592년 그는 '소호호남의병문'(召募海南義兵文)을 써서 의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의병에 나오지 않는다면 의병을 돕지 아니한다면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불의한 사람이며, 금수와 갈

은 마음으로 적을 돕는 무리나 다름없습니다.” 고경명은 호남 의병의 상징적 인물이다. 첫째와 둘째 아들도 의병활동을 하다 희생당한다. 포충사는 이들 삼부자 외에도 유평로, 안영 등 5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고경명은 불리한 전황에도 불구하고 금산전투에서 고군분투하다 순절한다.

이밖에 책에는 알려지지 않는 의병들에 대한 기록도 나와 있다. 강진 연결 일가를 비롯해 광양 강희보 일가, 나주 양산속 일가, 달성 광준 일가, 순천 허일 일가, 영광 김사모 일가, 화산 최경회 일가 등에 대한 활약과 순절한 내용들을 만날 수 있다. <기디언·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쇄미곡'을 바탕으로 그린 한양의 참상(신영훈 작)

너의 밤으로 갈까

김흠 지음



시와 묵화는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일정 부분 공통점이 있다. 한쪽은 창작이라는 개인적인 작업에 초점을 둔다면, 다른 한쪽은 신앙생활 지도라는 타자의 변화에 방점이 놓여 있다. 그러나 두 영역 사이에는 묵상, 사유, 정진과 같은 공통적인 키워드도 존재한다.

장성 출신의 김흠 시인은 묵사 시인이다. 묵화의 길을 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창작의 길을 간다. 두 분야 모두 어렵고 고행의 길이다. 얼마 전 시인이 펴낸 '너의 밤으로 갈까'는 타자에 대한 아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감을 담은 시집이다. 작품 곳곳에서 삶의 아픔과 비극성을 외면하지 않는 시선이 느껴진다.

이에 앞서 시인은 지난해 '사진시집'을 발간하고 '광주 5월'을 조명한 전시를 연 바 있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헤아리는 마음으로 사물을 오래 들여다보면 신비 아닌 것이 없고 기도 아닌 것 없어요. 사진을 찍고 덧붙여 시를 쓰다 보면 생각지 못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게 됩니다. 문학과 신학, 시와 신앙이 접목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집에서도 타자의 고통을 '나'의 곁에 두어 감정을 공유하려는 심상이 느껴진다. 다음은 타자의 슬픔과 고통을 바라보는 화자의 심상이 드러난 시다. “꽃처럼 피어나는 슬픔을 보거든/ 나지막이 그 이름 곁에 새, 라는 말을 우리 붙여 주기로 해요// 할미새, 습새, 익새, / 헐거나, 헐한, / 격하게 파고드는 통증의 음절들로 피눈물이 날지라도/ 날개를 달고 신탁을 말하는 새가 그 곁에 내려앉으면/ 억겁으로 뭉쳐진 고통도 말랑해질 수 있을 거예요”(‘익새’ 중에서)

<시인의 일요일·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정하게, 토닥토닥

김글함 지음



평범함에 특별함을 더해 주고, 울고 싶은 날 힘을 마음을 위로해주는 건 그림책이 주는 힘이다.

그림책 스토리 작가 김글함이 펴낸 '다정하게, 토닥토닥'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상의 순간, 자신의 마음을 다정하게 토닥여준 그림책들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싶을 때, 주변을 이해하고 싶을 때,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할 때,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을 때면 작가는 그림책을 읽었다. 그림책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며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너무나 힘들어 몸도 마음도 작아지는 기분이 드는 날에는 '도토리시간' (이진희, 글로연)을 읽고 내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고 자존감이 바닥을 칠 듯 추락하는 날에는 '그래봤자 개구리' (장현정, 모래래(키다리))를 통해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얻기도 했다.

자신이 그림책을 통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저자는 독자들에게도 그림책이 주는 힘을 전하고 싶어한다. 1장 '나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은 날에는', 2장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날에는', 3장 '용기 있는 내가 되고 싶은 날에는', 4장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싶은 날에는'까지 저자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그림책과 만날 수 있도록 53권의 그림책을 소개한다.

“그림책은 상처받은 나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만들지요. 그동안 내 주변을 돌보느라 정작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은 아닐까? 아픈 마음, 지친 마음, 힘든 마음, 애쓰는 마음... 그림책을 통해 돌보고, 들여다봐야 할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빈빈책방·1만6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영화, 소리의 예술

미셸 시옹 지음, 이윤영 옮김



말과 음악, 소음이라는 소리의 세 양태는 영화에서 특정 효과를 만들어낸다. 무성영화에서부터 발성영화까지 '소리'는 이미지와 함께 영화 미학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역할해왔다.

영화를 '소리의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책이 나왔다. 미셸 시옹의 '영화, 소리의 예술'은 저자가 30년 이상 몰두한 소리와 영화를 접목, 130년 세계 영화사를 통시적으로 들여다 본다. 작곡가이자 음악학자, 영화 비평가인 미셸 시옹은 100페이지 이르는 음악 비평을 발표했으며 파리3대학 영화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책은 영화에 소리가 도입된 1927년이 영화미학의 원년이라고 본 뒤, 소리가 영화산업 자체를 뒤흔든 혁명이라고 주장한다. 제작 방식부터 영화관의 상영 조건까지 다양한 면에서 소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소리'의 도입과 맞물려 영화에 실제 시간이 도입된 것은 그 일레다. 이미지는 실제보다 더 느리거나 빨라도 크게 거슬리지 않는 것과 달리, 왜곡된 소리는 관객들의 귀에 민감하게 들리기에 러닝타임이 도입됐다고 한다.

“보아야 하는 것과 들어야 하는 것의 관계에(...) 끊임없이 놀라고, 때로는 여기서 웃고, 아니면 단순하게 이를 다시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자는 유성영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채플린', '비교', '타티', '히치콕' 등 일곱 개의 장을 나눠 감독과 영화를 소개한다. 영화에 접목된 텍스트나 소리의 차원을 분석하고 주목할 만한 지점을 들여다본다. 영화용어나 개념이 부족했다는 인식을 갖고 110개에 달하는 용어를 소개하는 해설집도 수록했다. 이 밖에도 오웬스, 타르콥스키, 웰스 등 영화 속 소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감독들을 언급한다. <문학과지성사·4만4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